

<수능완성 고전소설 주요 작품 문제 해설서> [숙영낭자전, 옥주호연]

1. [출제의도] 고전소설의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 ⑤

주인공의 행동을 회화화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으며, 주인공의 부정적 면모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조선 세종대왕 때'라는 구체적 시대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조선 세종대왕~근심으로 지냈다.'에서 '선군'이 태어나서 자라기까지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꿈속에서 본~숫아나는 듯 했다.'는 비유를 활용하여 '선군'이 본 '숙영 낭자'의 인상을 묘사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2. [출제의도] 등장 인물의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정답: ①

[A]는 '낭군은~했나이다.'라는 과거의 일을 언급하여 '선군'이 다른 가문에 구혼하지 않고 자신을 기다리기를 바라는 '낭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 [B]는 '며칠 전~갔나이다.'라는 과거의 일을 언급하여 '낭자'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는 '선군'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3. [출제의도] 인물의 이동 공간을 중심으로 서사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④

'선군'은 ㉠에 도착하고 나서야 '숙영 낭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① '선군'은 열여섯 살 되던 봄날, '숙영 낭자'와 만나는 꿈을 통해 자신이 천상에서 귀양 와 인간 세상인 '안동'으로 내려온 사실을 듣게 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숙영 낭자'와 '선군'은 '요지연'에서 서로 희롱한 죄로 각각 '옥연동'과 인간 세상인 '안동'으로 귀양을 오게 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네가~죽었구나'에서 '선군'이 '안동' 집에서 '서울'로 떠난 뒤 '백상군'은 '숙영 낭자'를 의심하였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옥연동'에 있던 '숙영 낭자'가 '안동' 집에 있는 '선군'의 꿈에 나타난 후 '선군'은 '숙영 낭자'를 잊지 못해 병에 걸리게 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4. [출제의도] 문학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정답: ③

'선군'이 '숙영 낭자'와 사별한 것은 매월의 모함과 '백상군'의 오해 때문이지, '백상군'이 유교적 관습에 따라 임 진사에게 구혼했기 때문은 아니다.

① '선군'은 천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귀양을 온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부모가 구혼하고 육례를 갖추어 혼인하여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선군'은 '숙영 낭자'와의 사랑 때문에 '백상군'이 임 진사택에 청혼한 것을 따르지 않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숙영 낭자'가 천상에서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선군'의 꿈속에 나타나 '선군'에게 다른 가문에 구혼하지 말고 삼 년을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5.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정답: ④

선군은 과거를 통한 입신출세보다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부부 간의 애정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지닌 인물이다. 그런데 부친이 권유한 과거를 응시하려면 부부가 떨어져 지내야 하므로 선군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처지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부친의 권유를 거절하며 이해를 구하는 말하기가 적절하다.

6. [출제의도] 등장인물 간의 갈등 양상 이해하기

정답: ③

숙영은 비록 육례를 치르지 못하고 결혼했지만 팔 년 동안 굳은 정절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과거 응시와 관련하여 선군이 숙영의 당부에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선군의 숙영에 대한 돈독한 믿음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선군이 집을 떠난 후 밤중에 숙영을 두 번이나 찾아 온 것은 부부간의 애정이 돈독한 것이지 선군을 의심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숙영이 자신에 대한 선군의 믿음을 의심한다고 할 만한 내용은 없다.

[오답풀이] ① 백상군의 첫 대화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 ② 부친의 과거 응시 권유 상황에서 거절하고 있는 선군의 대화 부분에서 애정 중시 태도가 발견된다. ④ 선군이 숙영의 말을 듣고 '선군의 급제는 스스로 더욱 절실하게 생각되었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밤에 남편이 왔다 간 일을 근거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 이해하기

정답: ①

숙영은 남편 선군이 과거에 응시해서 꼭 급제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한 심정으로 응시 차림과 여정의 행장을 직접 챙겨주면서 강경한 다짐의 말을 남편에게 하고 있으므로,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금의환향(錦衣還鄉)'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 ③ 쫓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④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⑤ 화(禍)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8.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②

꿈과 현실이 교차되는 장면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상공이 낭자의 방에서 나는 남자의 소리를 듣고 '혼자 말하며 '의혹과 분함'을 느꼈으므로 적절하다. ③ 상공과 낭자의 대화에서 갈등이 선명하게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④ '누명을 벗기 어려운~어찌 더 살 뜻이 있으리오'와 '그 불쌍하고 애달픈~볼 수 없더라'에서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가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⑤ '꽃처럼 고운 낭자의~피가 샘처럼 솟아났다'는 묘사를 통해 낭자가 처한 상황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정답: ④

'낭자'가 '아이'를 달래는 척한 것은 '선군'이 방문한 사실을 '상공'에게 숨기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적절하다.

① '낭자'는 '선군'에게 집으로 오지 말라고 당부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선군'은 '낭자'에게 그림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낭자'는 '매월'과 이야기를 나눈 일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상공'이 '매월'을 부른 것은 낭자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정답: ⑤

남자는 외간 남자를 만난 적이 없으며, 남자가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은 상공의 오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남자와 선군 부부는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진다라는 점에서 애틋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상공의 명에 의해 남자가 감시당하며 자유로운 삶을 제한당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남자가 하인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것은 폭력에 희생당하는 비극적 삶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선군이 남자와 함께 있고 싶지만 억지로 과거를 보러 떠나는 것을 통해 입신출세가 요구되는 남성의 삶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정답: ①

㉠은 남자가 잘못이 없음에도 상공에게 문초를 당하며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호소하는 말이다. 따라서 ‘뼈에 사무치게 맺힌 원한’을 뜻하는 ‘각골통한(刻骨痛恨)’이 적절하다.

②는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③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④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함’을, ⑤는 ‘효도하고자 할 때에 이미 부모를 여의고 효를 다하지 못하는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③

선군은 남자가 준 금동자는 상 위에 올려놓고, 화상은 병풍에 걸어 두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이를 기이한 보배로 여겨 구경하게 되면서 선군의 집안 형편이 점점 나아지게 된다. 선군 이 병풍의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다.

① ‘나는 진세의 숙객이요, 남자는 천상의 선녀인데 어찌 우리 사이에 연분이 있다 하오?’라는 선군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선군의 부모는 아들의 병세가 심상치 않자 그 이유를 묻지만, 선군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다.

④ 남자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으려는 선군을 설득하며 노자를 준비해 주고, 선군은 마지못해 과거 길에 오른다.

⑤ 선군이 주막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하인은 선군을 걱정하며 안타까워한다.

13. [출제의도] 작품의 구조 파악

정답: ②

㉠은 남자를 그리워하며 병에 걸린 선군이 남자를 잠시나마 만나 그리운 마음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에 해당한다.

① ㉠은 등장인물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에 등장인물의 의구심이 해소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에 등장인물의 의구심이 심화되는 부분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에는 선군과 남자의 전생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과거의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반면 ㉠에는 앞으로의 사건 전개 방향이 암시되어 있지 않다.

⑤ ㉠과 ㉠ 모두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는 않다.

14.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이해

정답: ④

[A]에서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다는 것과 남자와의 이별로 인한 안타까움을 내세워 부모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고, [B]에서는 입신양명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당연한 도리임을 내세워 선군의 말에 반박하고 있다.

① 남의 이목을 설득의 근거로 삼는 것은 [B]에만 해당한다. 이는 [B]의 ‘세상 사람들의 꾸지람이 마침내 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남의 비웃음을 사지 않게 하십시오.’에서 드러난다.

② [B]에서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A]에서는 남자와의 이별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내세우며 부모를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A]가 긍정적으로 예측 되는 결과를 내세우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A]와 [B]는 상대방 견해의 논리적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1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

정답: ⑤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선군이 과거 길에 올랐다가 다시 집으로 숨어든 것은, 입신양명이라는 유교적 가치와 숙영 남자와의 사랑이라는 개인적 가치의 충돌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군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선군의 꿈에 나타난 남자는 선군에게 자신들이 선녀와 선관으로 천상에서 만나 연분을 맺었다고 말한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천상계의 인연이 지상에서도 이어지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남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만사에 무심히 지내던 선군 앞에 남자가 나타나 화상과 금동자 한 쌍을 건네는데, 이는 남자가 홀연히 사라진 뒤에도 남아 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작품이 전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③ 선군은 남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름시름 앓게 되지만 부모에게는 차마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한다. 이는 <보기>에 언급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 즉 조선 시대에 남녀 간의 자유로운 사랑의 감정이 억압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선군의 부모는 선군에게 과거 길에 오를 것을 재촉한다. 이는 <보기>에 언급된 유교적 이념 중에서도 입신양명이라는 가치관을 중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6.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⑤

‘최완’이 ‘본진’으로 돌아와 거짓으로 항복한 이유를 말하고 ‘원양복문’으로 나아가 한양과 싸우는 등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긴박함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서사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①

‘한양이 그 진을 살피지 못하고 ~ 최완의 창을 맞아 죽은지라’에서 한양은 최완의 진을 파악하지 못하고 북군으로 착각하여 원양 북문을 열어 결국 북군이 패하게 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여자는 그 어미 행사를 ~ 용서치 아니 하리라.’에서 유생은 왕씨가 무예를 익히는 삼소저를 단속하지 않았다고 꾸짖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우리 팔자 무상하여 ~ 사후를 의탁할까 하였더니’와 ‘어이없어 다만 탄식뿐이러니’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방금 천하 크게 ~ 세월을 허비하리이꼬’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양진이 상대하매 ~ 뉘우침이 없게 하소서’에서 원건은 장임에게 간언을 올리지만 장임은 명주와 최완에게 주욕으로 정성껏 대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 감상하기

정답: ②

‘옛날에 당 태종의 누이 장원공주도 ~ 이름이 지금 유전하오니’에서 무예를 배워 천하에 이름을 널리 알린 장원공주의 업적이 드러나므로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된 효를 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소녀 등도 이 일을 본받아 ~ 부모께 현양코자 하옵고’에서 무예를 익혀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삼소저의 욕망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여자의 도는 ~ 나지 아니함이 마땅하거늘’, ‘어찌 한갓 여도를 지키어 세월을 허비하리이꼬’에서 삼소저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요구된 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활을 한 번 당기어 ~ 말에서 떨어지매’에서 여성 주인공인 벽주의 뛰어난 능력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차설. 육 인이 원양성 ~ 할 일 없어 항복하는 지라.’에서 여성 영웅인 삼소저가 남성 영웅인 최완, 최진, 최경과 동등한 위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④

㉑에서는 명주가 최완에게 원양성 함락을 위해 협력을 제안하고 있고, ㉒에서는 명주와 최완 두 사람이 장임을 전략적으로 속이기 위해 장임에게 겉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㉑에는 대화 상대방과 진실로 협력하려는 의도가, ㉒에는 대화 상대방을 전략적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진술을 적절하다.